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복지증진 과제

權善進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1. 배경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사회구조내에서 권리와 참여는 많은 부분 제한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여성이 장애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장애인은 실태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에서 여성장애인의 규모가 남성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규모에 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교육받을 권리와 노동의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힘겨운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

1995년 8월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발전의 미래전략과 이행을 검토하고 또한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

비정부기구(NGO) 포럼을 통해 실태와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약 20여 개국이 참여하여 각국의 불평등과 비인격적 처우 등 생활실태를 보고하고 관심을 촉구하였으나, 여성장애인은 복지수준이 월등한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도 비교적 최근에는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다.

사회적 관습에 의한 차별적 구조속에서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또는 그 이상의 고통을 지닌 계층으로서 대부분 가정속에서 생활하면서 교육과 결혼, 취업 등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사회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다. 특히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시설이나 가정내의 성폭력 등 인권유린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서 동등한 인격체로서 생활해야 할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회도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경제의 발전 등 변화에 따라 장애인도 더불어 함

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함으로써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여성장애인 현황 및 장애관련 특성

여성장애인의 규모는 1995년의 전국 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의 45.7%인 47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규모는 우리의 전체 인구 대비 1.1%에 해당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정하고 있는 장애인구 비율인 10%를 기준으로 하면

약 5%의 여성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의 장애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1985년 이후 장애인의 성별 구성비를 보면, 여성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의 증가, 인구고령화, 그리고 60~70년대 안보와 경제개발을 주로 담당했던 남성에서 많았던 장애(예컨대, 전상에 의한 장애 등)의 상대적인 감소 등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재가 장애인의 성별 구성비의 변화

(단위: %, 명)

| 연 도 | 남 자 | 여 자 | 계 |
|------|----------------|----------------|-------------------|
| 1985 | 56.2 (509,000) | 43.8 (398,000) | 100.0 (907,000) |
| 1990 | 56.0 (524,800) | 44.0 (412,400) | 100.0 (937,200) |
| 1995 | 54.3 (558,700) | 45.7 (470,200) | 100.0 (1,028,90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각년도.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장애를 입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1994)에 의하면, 인구 10만명 당 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확률은 남성은 110.1명이나 여성은 36.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장애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령

화 사회로의 진전으로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1970년 39.3%, 1985년 41.9%, 1994년 47.9%)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향은 일정 수준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장애인의 장애와 관련하여서는 남성의 경우 지체장애가 많은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노령이나 만성질환에 의한 장

애, 특히 청각이나 시각장애 등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의 진단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 진단을 받은 비율이 86.1%인 반면 여성은 75.2%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증상을 보인 직후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여성에게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비율이 49.8%(남성은 37.1%)로서 절반정도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년 이상 만성질환을 앓았던 비율도 65.8%로 남성장애인(53.1%)에 비해 높으며,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한 경우도 많아 장애 이외의 각종 질병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장애와 관련하여 진단과 치료의 미비,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경제적 문제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종 급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성장애인의 보건의료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여성이 전체적으로 남성(59.3%) 보다도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70.6%), 여성장애인을 돌봐주는 수발인(caregiver)이 없는 경우도 남성(1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서(33.5%) 보호수발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가족원이 질병이나 취업 등으로 수발할 수 없을 경우 적절하게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성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또는 그 이상의 고통을 지닌 계층으로서 교육, 결혼, 취업 등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사회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다.

연금이나 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는 경우는 전체의 16.6%이나 여성장애인은 3.2%에 머무르고 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여성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전체 여성장애인의 16.8%)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는 남성이 53.4%인데 비해 여성은 훨씬 낮은 비율(35.1%)을 보이고 있으며, 등록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도 남성(72.8%)에 비해 56.4%로 낮아,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미약하나마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있어서도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여성장애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욕구에 있어서는 의료혜택, 생계보장, 주거보장 등의 순이었다.

3. 여성장애인의 교육과 결혼

여성장애인에 있어 자립의 기반은 일정한 수준의 학력 또는 기능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취업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즉,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이하가 79% 정도이고 이 중에는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은 경우도

32.5%를 차지하고 있어, 비장애 여성은 물론 남성장애인에 비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기능기사 등 자격증의 소지율에 있어서도 남성장애인이 30.5%인 반면, 여성은 6.6%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장애인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상당히 제약되고 있으며 특히 학령기에 인성발달 및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남아선호의 관습 등으로 장애여아의 부모들은 학교를 보내려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성장한 후의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

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여성장애인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여성장애인에 있어 결혼과 가정의 유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처럼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전통이나 가문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결혼생활에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여성장애인의 결혼상태를 결혼적령기인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장애여성의 결혼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미혼이 60.5%로서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50.7% 보다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7.4%에 불과하다. 한편 30대에 들어서는 결혼한 비율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일반

표 2.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비교

(단위: %)

| 구 분 | 장 애 인 | | 일 반 인 | |
|-------|-------|-------|-------|-------|
|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 초등이하 | 78.6 | 47.8 | 43.0 | 23.3 |
| 중 학 교 | 9.6 | 17.4 | 20.3 | 17.7 |
| 고등학교 | 7.4 | 21.7 | 28.4 | 38.9 |
| 특수학교 | 2.4 | 3.9 | - | - |
| 대학이상 | 2.0 | 9.2 | 8.3 | 20.1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여성에 비해 낮으며, 이 시기에 미혼인 경우와 이혼한 비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징적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여성장애인의 경우 결혼과 가정유지를 위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낮은 교육수준과 가정유지 및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표 3. 여성장애인의 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 | 미 혼 | 유배우 | 사 별 | 이 혼 | 계 |
|-----------------|--------|------|------|-----|-----|-------|
| 여성장애인 (1995) | 20~30세 | 60.5 | 37.4 | 2.0 | 0.1 | 100.0 |
| | 30~40세 | 13.7 | 78.0 | 2.4 | 5.9 | 100.0 |
| 전 국 (1990) | 20~30세 | 50.7 | 48.9 | 0.2 | 0.2 | 100.0 |
| | 30~40세 | 4.1 | 92.6 | 1.9 | 1.4 | 100.0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4.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여성장애인은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참가율(15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와 실업자 비율)과 실업률로 구분해서 비교하여 살펴보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1994년 현재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7%인 반면, 장애인은 43.9%인데, 그나마 남성장애인은 57.7%의 참가율을 보이는 반면, 여성장애인은 27.7%로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1/2 정도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에 있어서는 더욱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남성이 24.7%, 여성이 34.1%로 일반인은 물론 남

성장애인에 비해서도 더 많은 여성장애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취업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취업직종에 있어서는 대부분 농업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단순노무직 32.5%, 농업 28.7% 등 전체적으로 61% 정도의 취업여성들이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교육수준을 갖추고 기능훈련 등을 통한 직업재활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서 임시·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가 전체의 1/2 정도인 48.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표 4.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

| 구 분 | 여 자 | | 남 자 | |
|---------|------|------|------|------|
| | 장애인 | 일반인 | 장애인 | 일반인 |
| 경제활동참가율 | 27.7 | 47.9 | 57.7 | 76.4 |
| 실 업 륜 | 34.1 | 1.9 | 24.7 | 2.7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정기원 외, 「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상용근로자(28.2%)나 자영업(20.6%)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자영업이 44.5%로 가장 많고 상시고용이 36.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장애인의 취업상태와 종사상의 위치가 매우 열악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남성장애인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확충의 의미에서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 기능훈련, 취업알선 체계 구축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의한 장애인 고용실적에는 여성장애인 현황이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적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5.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우리의 현 장애인복지 여건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

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앞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여성계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여성 장애인들의 요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즉, 성폭력 등 인권유린에 대한 제재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법 등의 제·개정과, 장애인 관련법에의 여성장애인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을 통해 위기대처가 어렵고 성폭력 등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여성장애인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기회의 확대라 할 수 있다. 일반인은 물론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교육수준으로 말미암아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가 달성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기회 확충 측면에서 특수학교 등의 교육시설 확대는 물론 외부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재택방문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와 함께, 이들이 적극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모교육 등으로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장애인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가족부양의 부담과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립기반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여성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에 대해 기본적인 생계보조 외에 특별수당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 결혼, 취업 등에서 대부분 소외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가정생활 유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복지서비스 차원의 장애인 배우자 초청교육 프로그램이나 결혼 및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여성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교육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거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상담전화’의 개설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수용 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와 특히 성폭력의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행정관청의

여성장애인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관리·감독기능의 강화와 개방화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여성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장애인 스스로의 힘으로 권익을 도모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여성장애인에 대한 홍보 등의 효과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 문제는 여성복지 차원에서 볼 때, 정부와 민간단체의 공동의 연계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이 취업·고용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경증의 남성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고용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법적인 의무고용 인원 중 일정한 비율을 중증 또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예컨대 3%)과 함께 공무원 시험 등과 같이 국가시험에서 여성장애인 배려 차원으로 일정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장애인 대회

또는 채용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장애인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제도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특혜가 아닌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간행물 구독회원 안내

☘ 회원 가입안내

- 가입방법: 구독회원 가입신청서를 연구원 간행물 관리실로 제출하고, 연회비 10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회비납부: 한일은행 019-219956-01-014(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편대체온라인 012468-32-0037242(가입자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도 회원에게만 제공합니다.
- 월간지 『보건복지포럼』도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오르더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122-705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관리실
- TEL : (02) 353~1570, 355~8003(교환 308, 309)
- FAX : (02) 356-2840, 352-9129